

읽는 이, 읽을 것, 읽을 곳이 있는 大學

金 鍾 九

(韓南大 國語國文學科)

최근에 유행하는 문학 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讀者는 王이다. '讀者의 讀者에 의한 讀者를 위한' 문학 시학이 후기 구조주의, 수용미학, 해체론 등의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학 행위의 주체를 읽는 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제 19C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대학 문학자에게 미쳤던 작자 중심의 역사 실증주의는 사라져 가고 있다. 이론적 생성력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들에 이론적으로 무섭게 도전하였던 형식주의자·구조주의자들의 텍스트 중심의 객관주의 문학 이론도 지난 시대의 유물로 서서히 퇴락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독자에 대한 관심은 맹목적인 세 것 콤플렉스만이 아니다. 일찌기 아리스토텔도 예술의 效用的 機能性을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독자는 최초의 시학자에서부터 예술 행위의 주체로 인식된 셈이다. 아마도 예술가를 중심으로 예술 행위를 인식하게 된 것은 르네상스 이후일 것이다. 비로소 19C가 예술가의 시대였다. 이 시대에서 대두한 문학 이론이나 비평은 아리스토텔이나 호레이스와는 달리 작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독자와 관객이 무시되었다. 그들은

그저 박수꾼에 지나지 않았다.

작자 중심의 이론가들은 독자의 讀者心理, 그들의 讀者慣習, 讀者過程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작자의 심리, 삶, 그를 에워싼 역사와 사회가 관심의 전부였다.

20C의 이론적 문학 연구의 대명사가 된 형식주의·구조주의는 텍스트의 과학적 객관성을 엄격히 옹호하기 위하여 작자와 독자 모두를 문학의 의미 영역 밖으로 추방하였다. 절해 고도의 유배지! 이들은 그곳에 철지한 언어의 감옥을 마련하고자 오랫동안 부심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 중의 일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 독자의 죽음은 문학의 죽음이다.

독자의 죽음은 대학의 죽음이다. 대학이야말로 영원히 읽는 이들의 낙원이어야 한다. 출판되는 모든 형태의 저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대학이라고 말하면 대학의 지나친 교만일까? 읽는 이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대학인들은 서로 친숙하다. 읽지 않는 자가 대학인 행세를 할 수는 없다. 읽는 이와 읽는 이들의 만남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 그것이 연구실이며, 강의실, 도서관이며 대학의 캠퍼스 이곳 저곳이 아닌까?

대학 입학이 읽기의 약속이다. 나는 학기마다 강의실에서 읽는 이로서 읽어야 할 것의 약속을

해 본다. 강좌에 따라 한 학기 강의 계획을 독서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끔 음모해 보기도 했다. 흥분과 기대로! 곧 베신이 왔다. 부추겨 보기도 하고 위협적인 언사도 사용해 보았다. 그들은 말이 없다. 그같은 새 학기가 거듭되면서 기대는 몽포로 점차 바뀌어 가고 친숙함은 낯섬으로 변모했다. 낯섬과 이질감으로 강의실에서 나는 자꾸만 왜소해진다. 이제 약속이 필요없게 되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약속할 수 없는 대학, 이것이 오늘의 우리 肖像인가!

문에 창작에 뜻을 두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대학 신문들도 매년 문예 현상을 하는 모양이다. 아무렴 글썽에 뜻을 두고 있는 모양이니 좀 다르겠지. 그러나 그들의 글에도 전혀 讀書力이 없다. '적적 몸으로 경험한 살아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한다. 읽는 것이 글썽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한다. 읽기와 쓰기, 讀書力과 文章力이 같은 言語能力이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최루탄과 화염병, 소주와 오줌싸기 등이 문학이라 우기는 그들에게 더 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읽을 능력이 없다. 읽힐 능력도 없다. 여처구니가 없다. 왜 대학 도서관 앞에서 시위를 하나? 도서 구입비보다 도서관 보수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대학도 혹 있거나 없을는지? 읽을 것이 있는, 읽기 위한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시위의 집합 장소로 변모한 오늘의 이 현실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

입시 제도에 더 큰 원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등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하다. 바로 읽고 바로 쓰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한국의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쓰고 읽기가 국어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른 쓰기는 바른 읽기에서 비롯한다. 읽는

것이 의미의 소모 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意味의 創造行爲다. 교사에 의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결정되는 교육으로 바른 읽기와 쓰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의미의 전수가 아닌 의미를 발견·창조하는 교육이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텍스트 의미에 대한 다양한 의미의 의견이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표출되어야만 한다. 문교부는 왜 논술고사를 폐지했나?

왕성한 식욕의 독자가 가끔은 있다. 대학만을 읽고자 하는 이욕심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읽을 것이 없는 대학! 읽고 싶은 모든 책을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독자는 드물다. 외국 대학 도서관의 수와 규모, 장서량 등에 관한 이야기를 때로 귀동냥해 듣는다. 읽어 볼 만한 책이 별로 없는 한국의 대학 도서관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읽을 것이 없으니 읽을 곳인들 제대로 마련되어 있을 터이 있겠는가? 그러니 지하 서적이니 그것도 몇 번이나 읽고 읽는 것은 아닌지?

또 새 학기가 찾아 왔다. 아직도 속을 마음의 여유는 있다. 결코 긴 긴 방학을 헛되이 보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총·학장님들도 금년엔 대학에 대학다운 도서관을 지어 우리 대학의 읽는 이들을 깜짝 놀래키고자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 아닌가? 읽을 것과 읽을 곳이 없는 대학이 있을 수나 있는가 말이다. 오늘의 빈약한 대학의 도서관으로는 결코 교과서마저도 그날그날 한 두 페이지 복사하여 살아 가는 대학의 날품팔이 독서꾼의 고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다.

교수의 독서 권유를 서적 외판원의 외침으로 듣는, 그래서 독서 권유를 그들 경제력의 약취행위로 이해하여 노골적 저항의 눈 빛으로 다가오는 저들을 언제고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